

양현종, 논란 끝 KIA 복귀... 이전 실력으로 보여줘야

4년·계약금 30억·연봉 25억·옵션 48억 등 총 103억원 FA계약 "타이거즈와 나누어 생각해본 적이 없어, 팬들에게 기쁨 드리겠다"

1년 만에 '호랑이 군단'으로 복귀한 양현종, 말이 아닌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스토브리그의 뜨거운 이름이었던 양현종이 장고 끝에 KIA 타이거즈와의 FA 계약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지난 24일 KIA와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30억원, 연봉 25억원, 옵션 48억원 등 총액 103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미국 진출로 팀을 떠났던 양현종은 다시 KIA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

앞서 KIA는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나성범을 파격 영입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어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해온 양현종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시즌 가장 주목받는 팀으로 급부상했다.

그만큼 양현종의 어깨가 무겁다.

KIA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양현종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뜨거운 여론에 직면했다.

협상을 놓고 공개적으로 섭섭함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논란, 앞선 두 차례 FA 협상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팬심이 동요했다. 여기에 외부 FA 나성범 영입과 맞물려 양현종은 뜨거운 이름이 됐다.

논란의 시작점이 된 14일 이후 22일 다시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서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KIA는 공개적으로 협상 종료로 알리기도 했다. 이를 만에 양현종이 결론을 내리면서 해를 넘기지 않고 계약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계약을 끝낸 뒤 "제 이름과 타이거즈를

나누어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국내 복귀를 결정했을 때부터 타이거즈에 돌아간다는 생각뿐이었다.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타이거즈 팬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계약 소감을 밝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가 지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양현종의 계약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다. 양현종의 앞선 행보들이 '본의 아닌 논란'을 일으켰고, 냉정한 현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징성'을 강조했던 양현종과 '현실'까지 고려해야 했던 구단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예상보다는 길어졌다.

2007년 동성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난 양현종은 지난 14시즌을 뛰면서 425경기에 나와 1986이닝을 소화하면서 3.83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47승 95패 9홀드를 기록했다.

KBO리그 통산 승리 4위, 탈삼진 4위(1673개), 이닝 7위를 기록하는 등 팀은 물론 KBO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해왔다.

하지만 2020시즌 172.1이닝을 던지면서 4.70의 평균자책점으로 11승 10패의 성적표를 작성했던 양현종은 올 시즌 미국 무대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은 내지 못했다.

'빅리그'라는 꿈에 무대에 오르는 했지만 메이저리그 12경기에서 35.1이닝을 소화해 9개의 피홈런을 기록하는 등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승리 없이 3패만 기록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이 지난 24일 KIA 타이거즈와의 FA 계약을 마무리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마이네리그 10경기(45이닝)에서도 10개의 피홈런을 기록하는 등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승리 없이 3패만 남겼다.

그리고 두 차례 방출 대기 조처 끝에 아쉬움 속에 미국 도전을 마무리했다.

2년 연속 양현종의 이름에는 부족한 성적을 냈

고, 내년이면 35살의 투수라는 점에서도 우려의 시선이 있다. 그만큼 양현종의 공 하나 하나가 내년 시즌 KBO리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마운드 밖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KIA는 단순한 성적에서만 양현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KIA 마운드에 '노하우'

를 더해주는 등 베테랑의 솔선수범을 기대하고 있다.

양현종이 앞선 논란을 완벽하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진짜 프로의 실력이고 자존심이다.

/김여재 기자 wool@kwangju.co.kr

변화하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AI페퍼스

서브 폼 바뀌 범실 줄이기 센터 변화 공격 루트 다양화 신인 세터 박사랑 전력 가세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개인이 가진 캐릭터 자체를 좀 바꿔보라고 주문했어요. 변하지 않으면 언제나 제자리니까요. 시합 중이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시즌이 끝난 뒤 이뤄지는데, 우리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2021-2022 V리그 3라운드를 마친 시점, AI페퍼스가 V리그 생태계에서 변화하고 적응하며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박경현은 과감히 서브 폼을 바꿨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박경현의 서브를 드롭성에서 슬라이드로 바꿨다"고 말했다. 기존 드롭성 서브가 볼 상단을 때려 상대 코트에서 똑 떨어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볼 측면을 가격해 좌우로 휘어 들어가도록 구질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박경현은 지금까지 18경기에서 155번의 서브를 시도해 43번의 범실을 기록했다. 4번 중 1번 꼴로 서브 범실을 낸 셈이다.

잡은 서브 미스는 박경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감독이 "박경현이 서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할 정도다. 새로운 서브 폼에 적응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했던 상황이다.

김 감독은 "최근 박은서가 박경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박은서의 성장이 박경현에게 오기 발동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박경현에게는 조금 긴장을 갖고 해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박경현이 강한 멘탈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격루트 다양화를 위해 센터진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하혜진이 전위에서, 최가은이 후위에서 경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하혜진을 세터 이현 옆에 배치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도록 한 조치다.

김 감독은 라이트 경험이 있는 하혜진이 가볍고 빠른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박은서가 새로운 공격 자원으로 가담한 만큼, 하혜진의 공격력이 살아나면 더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 감독은 "하혜진이 이현과 함께 많은 이동공격, 속공, 시간차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이라며 "한 세트에 최소한 한 번은 공격을 시도해 보라고 했다. 아직 자신이 없는지 공격 시도가



AI페퍼스 레프트 공격수 박경현이 득점에 성공한 후 흐뭇하고 있다. <KOVO 제공>

잘 안 나오는데, 과감하게 해 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사랑도 큰 변수다. 당초 박사랑은 재활 기간이 길어져 1월 중순께 데뷔 무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넘어서 25일 흥국생명전에서 '깜짝 데뷔 무대'를 가졌다.

계획적인 깜짝 쇼는 아니었다. 최근 구슬이 혼란 중 허리 통증을 느껴 지난 25일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 이현이 모든 세터 부담을 받는 상황이 됐다. 김 감독이 박사랑에게 출전 가능 여부를 묻자, 박사랑은 주저없이 코트에 나섰다.

박사랑은 1.2세트에서 간간히 교체 투입돼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1세트에서는 이현비의 리시브를 하혜진에게 정확히 연결, 깔끔한 속공 득점을 뽑아내기도 했다.

김 감독은 "박사랑이 오면, 서체원을 센터로 투

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사랑과 서체원은 흥국생명 정운주와 함께 '대우여고 트리오'로 활약했던 만큼 합을 맞추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멤버들과도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김 감독은 박사랑의 출전 빈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이제 반 고비 넘었다. 후반전에서는 범실을 줄이고, 승부 근성을 가져야 한다"며 "냉철하게 플레이하며 범실을 줄이고, 의식적이고 근성 있는 플레이로 뒷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는 지난 2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흥국생명과 맞붙어 1-3으로 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페퍼스 엘리자벳·이현 'V리그 올스타'

V리그 올스타전 내년 1월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서 열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의 엘리자벳과 이현이 V리그 올스타로 뽑혔다.

엘리자벳과 이현은 26일 한국배구연맹(KOVO)이 발표한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 온라인 팬 투표에서 V스타팀 올스타로 뽑혔다.

V리그 올스타전 팬 투표는 지난 10-23일 동안 KOVO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총 16만 5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현은 6만8997표를 얻었으며, 엘리자벳은 전문위원추천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같은 V스타팀으로서 올스타전에 참가한다.

김희진(IBK기업은행)이 남녀부 통합 최다득표수인 11만 3448표를 얻어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했다. 또 이소영(KGC인삼공사·9만2077표), 박정아(한국도로공사·8만8091표) 등이 뒤를 이었다.

V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1월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스타전은 V스타팀과 K스타팀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V스타팀에는 흥국생명, 한국도로공사, 현대건



이현 엘리자벳

설, 페퍼저축은행 팀이 함께한다. 엘리자벳, 이현, 박정아, 정지훈, 황민경, 양효진, 이주아, 김해란, 이윤정, 이다현이 한 팀으로 땀을 흘린다.

K스타팀은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 KGC인삼공사 팀으로 구성됐다. 김희진과 이소영, 김주향, 강소희, 한송이, 염혜선, 노란, 모마, 안혜진, 김수지로 팀을 꾸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I페퍼스 마스코트 페퍼루·페퍼룰루 공개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구단 대표 마스코트 '페퍼루' (PepperRoo)와 '페퍼룰루' (PepperLulu)를 지난 25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공개했다.

페퍼루와 페퍼룰루는 배구와 디지털 인공지능을 모티브로 한 쌍둥이 로봇 캐릭터다. 모회사 페퍼저축은행의 캣거루 마스코트인 페퍼루와 페퍼룰루 캐릭터에 젊고 패기 넘치는 AI페퍼스의 개성을 덧입혔다.

로봇 캐릭터에 배구공을 결합한 형태로, 배구공을 형상화한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갖고 있다. AI페퍼스의 메인 컬러인 레드와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강인함과 열정을 표현했다.

또 AI페퍼스의 '디지털 배구'를 강조하기 위해 몸통 정중앙에 스크린을 탑재했다. 스크린에는 AI페퍼스 선수들과 팬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페퍼루 (PepperRoo)



페퍼룰루 (PepperLulu)

가 표시된다.

AI페퍼스 관계자는 "올해 창단해 여자배구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AI페퍼스의 팀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마스코트를 공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페퍼루와 페퍼룰루를 통해 팬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며, 선수들과 팬들이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스코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